

## 탈홍의 원인과 치료

마력병이 잘 퇴치되어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고 있는 이즈음 탈홍에 의한 폐사가 높은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탈홍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산란중인 건강제에서 최고능력을 발휘 하다가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지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탈홍은 산란중인 닭에서 수란관이나 직장이 밖으로 나와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 정상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일찍 발견하여 제자리에 다시 넣어줘도 치유되기는 힘들게 되며 대개는 죽게 된다. 탈홍은 육성기간 중의 사료상태가 나쁘거나 광선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나, 육성기간중에 산란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또한 산란개시시 닭이 너무 뚱뚱하거나, 제한급이 하여야 할 육성기간중 사료를 자유섭취하도록 한다면, 펠릿사료를 급여할 때 탈홍이 문제가 되기 쉽다. 광선조절의 실패로 산란시기에 수란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을 때나 갑자기 일장시간이 길어져 수란관의 이상 발달로 쌍알이 나오게 될 때도 문제가 된다.

보통 알을 낳때 수란관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때 이것은 정상이며 항문주의 근육조직은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 닭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자리에 들어 앉게 된다. 만일 지방섭취량이 과다하게 되면 수란관과 항문주의 근육의 신축성이 떨어져 제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홍이 되는 것이다.

광선조절의 실패로 너무 조숙이 될 때에는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신축성이 떨어지면 탈홍이 된다.

탈홍의 다른 원인을 보면 밀사, 소장염, 홀몬의 불균형, 외상(대부분 이경우)을 들 수 있다. 외상의 경우는 항문을 다른 닭이 조아서 일어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탈홍은 계군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쪼는 버릇은 부리자르기와 광선조절로 막을

수가 있다. 사실 탈홍에 의한 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고 쪼는 버릇에 의한 항문의 상처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광선은 사료통의 밝기를 기준으로 하여 15룩스로 줄이게 되면 쪼는 버릇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

소장염도 탈홍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계군의 사육밀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계군의 밀도에 관해서 코넬대학의 오스트랜더는 부리를 자르지 않은 병아리로 시험을 하였다. 한 케이지에 2~3수 수용했을 때는 카니발리즘이 문제되지 않았지만 4~5수 수용할 때는 카니발리즘이 문제가 되었다.

일부 양계인들은 계통에 따라 탈홍증이 더 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계통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음의 여러가지 사항은 탈홍을 막기위한 관리포인트이다.

1. 육성기간중의 사료급여계획을 잘 짜야 한다. 특히 지방을 줄이고 육성계에서는 반드시 가루사료를 급여한다.
2. 그 육성계가 산란능력을 완비할때까지 광선에 의하여 성성숙을 제한 하여야 한다. 광선을 일시에 너무 공급하면 쌍알을 낳는 수가 있으므로 조심한다.
3. 부리자르기를 철저히 실시할 것
4. 계군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소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5. 대추의 부리자르기 상태를 점검할 것
6. 사양관리계획을 수립해 사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여 체중이 표준보다 더 나가지 않도록 할 것.
7. 광선을 10룩스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 할 것
8. 밀사를 방지할 것